

## 소수자 문학과 문학교육의 과제

윤 승 리<sup>1)</sup>

인하대학교

---

### <요 약>

---

생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죽음은 소수 교육철학의 형성에 기여한다. 소수 문학에 대한 탐구는 이 관계를 확고하게 해준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소수 문학이란 소수 언어로 쓰인 문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자들이 다수언어로 만들어내는 문학을 말한다. 그들은 카프카의 작품들을 그 전형으로 내세운다. 카프카의 작품들은 궁극적으로 이 생성(devenir)으로서의 죽음을 말한다. 죽음과 소수 문학은 강도(intensité)라는 이론적 도구를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전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수 교육철학은 이런 주장을 좇아 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잘 포장된 상품으로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만 만족하는 현대 교육철학자들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특정한 방식으로만 철학자들을 독해하도록 강요하는 주류 교육철학에 맞선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정동(affect)으로서의 언어에 입각한 교육활동을 통해 제기해 볼 수 있다.

**주제어** : 죽음, 소수 문학, 소수 교육철학, 강도, 정동, 배움

---

---

1) 교신저자, molinamolina@naver.com

## I. 서론

“죽음은 또 다른 위장이며 단지 또 다른 생성의 나타남과  
망령에 지나지 않는다(Pearson, 1997: 65).”

오늘날 글쓰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단순히 정보들을 실어 나르는 도구일 뿐인가, 아니면 여전히 새로운 문제제기의 원천인가. 이 단순한 물음, 그러나 해결하기 어려운 물음 앞에 들뢰즈와 가타리는 도전장을 내민다. 그들은 모든 글쓰기가 어떤 죽음의 문제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특히, 소설가 카프카(F. Kafka, 1883-1924)에 대한 주석인 『카프카-소수문학을 위하여』(1975)를 비롯한 소수문학(*mineure littérature*)에 대한 논의들에는, 그들의 이런 생각이 농축되어 있으며 여타 저작들 또한 그 맥(脈)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죽음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표현의 문제, 곧 글쓰기의 문제로 제기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그들은 『철학이란 무엇인가』(1991)에서 “철학은 개념들을 창출(*créer*)해내는 학문이다(Deleuze and Guattari, 1991/이정임·윤정임 역, 1995: 13).”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언급을 좇아 일종의 ‘개념의 교육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새로운 교육철학적 개념의 창조를 통해 교육철학적 지평의 변형(變形)에 기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곧 다음의 물음으로 바꿀 수 있다. 죽음의 문제가 곧 교육의 본질에 관한 물음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연구자들은 이런 물음을 토대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죽음과 그들이 말하는 소수 문학, 나아가 이 관계를 바탕으로 제기되는 소수 교육철학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대 교육철학 연구에서 죽음과 교육의 관계에 관한 고찰은 실존주의 철학에서의 죽음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검토에서 행해진 바 있다(강선보, 2003). 실존주의 철학에서 죽음은 ‘불확실성(키에르케고르)’, ‘한계상황(야스퍼스)’, ‘의미의 가능성(하이데거)’, ‘부조리와의 대면(사르트르)’ 등에 관한 물음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삶과 죽음의 영김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교육적이라 할 만하나, 무엇이 양자를 매개해 주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삶이 죽음에 직면할수록 죽음의 영원성이라는 측면에 더 참여하는 ‘새로운’ 것이 된다(Williams, 2011: 173).” 이 생성으로서의 죽음은 삶-죽음 경계의 불명료성, 사회적 죽음 그리고 보편으로서의, 내가 아닌 우리의 죽음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보인다(II-1). 한편, “소수 문학이란 소수 언어로 쓰여진 문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자들이 다수 언어로 만들어내는 문학(Villani and Sasso, 2003/신지영 역, 2012: 253 재인용)”으로서, 이 또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보인다. “1) 언어의 탈영토화, 2)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직접적 연결, 3) 발화행위의 집단적 배치(K, 48)(II-2)”

죽음과 소수 문학 양자는 강도(強度, intensité)<sup>2)</sup>를 공동의 이론적 속성으로 삼아 논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도출되는 ‘문학과 삶 : 소수 문학과 죽음’ 쌍은 병과 건강의 관계를 생성과 그 중단의 관계로 치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양자가 서로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III-1).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기존의 학문적 권위에 균열을 가하는 소수 교육철학을 향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III-2).

이상을 바탕으로 이 글은 다음의 연구목적을 갖는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죽음과 소수 문학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것이 소수 교육철학의 정립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그들에게 소수 문학이란 무엇인가. 셋째, 그들에게 죽음과 소수 문학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넷째, 소수 문학을 매개로 파악되는 죽음과 교육의 관계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도출되는 소수 교육철학의 조건은 무엇

2) 들뢰즈 개념어 사전(A. Villani and R. Sasso, 2003/신지영 역, 2012: 46-47)의 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이하 들뢰즈와 가타리 특유의 용어들에 대해서는 이 사전을 참조하여 밝히기로 한다. 우선 강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순수 차이로서의 존재를 구성하는 차생(差生)적 과정의 역동성으로서, 완벽하게 감각과 연결되어 있으며 개념 안에까지 현존한다. 모든 강도는 차생적이며 즉자적 차이이다.”

인가. 이를 위해 들뢰즈와 가타리의 저작들과 연구문헌들, 그리고 죽음과 글쓰기 및 죽음교육에 관한 연구물들을 검토하였다.

## II. 죽음과 소수 문학

### 1. 죽음: 문제(problème)<sup>3)</sup>와 물음의 원천

#### 1) 죽음본능을 넘어

들뢰즈<sup>4)</sup>의 죽음론은 크게 두 개의 방향에서 파악된다. 우선 프로이트의 ‘죽음본능’과의 대결이다. 들뢰즈가 비판 대상으로 삼는 헤겔적인 의미의 외적 반복은 매개를 통해 동일성을 파악함으로써 ‘차이 그 자체’를 놓치고 있다. 이러한 ‘헐벗은 반복’의 생물-심리학적인 대표 사례는 프로이트의 반복강박이다. 들뢰즈가 보기에 “[반복강박을 특징짓는] ‘자동성’의 관념은 여기서 고착화된 충동의 양태, 더 정확히 말해서 고착이나 퇴행에 의해 조건 지어진 반복의 양태를 표현(Deleuze, 1968/김상환 역, 2004: 236)”할 뿐이다. 이는 “재현의 요구에 종속되어(ibid.)” 있다는 점에서, 즉 살아있는 반복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삶과 죽음 사이의 갈등에 기초하는 이원론에 완전히 묶여(ibid.)” 있고, “개인주의적이거나 주관적이며, 실체론적(réaliste)이고 기계론적인(matérialiste)(ibid., 237)” 것에 불과하다.

3) “정리(théorème)가 자신의 관할 하에서 포괄하는 모든 경우들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라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실 앞에서 그것을 묘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갖지 못하게 될 때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지도선의 권위 아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특이성들의 집합에 의해 필연적으로 분할되며, 그 근방들은 이질적인 방식으로만 배치될 수 있을 뿐이다(ibid., 134).”

4) 잘 알려져 있다시피, 들뢰즈와 가타리는 들뢰즈 단독으로 이루어진 철학사 연구와 존재론 작업 이후, 서로를 알게 되었다. 저자들 자신이 ‘내가 아닌 우리로서 작업했다’는 말을 여러 지면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들뢰즈 혹은 들뢰즈와 가타리를 구분하는 일은 이 논문의 성격상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들뢰즈가 보기에 “죽음은 차이의 가능성의 조건이자 반복의 근원으로 파악된다 (ibid., 254).” 즉, 내적 차이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것이지,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물질적이고 생기 없는 것이 아니다. 정신분석을 과학이라고 생각한 프로이트는 생물학적 ‘단합’, 곧 육체적 죽음을 최종심급으로 파악한 반면, 들뢰즈는 죽음 또한 새로운 생성으로 파악한다. 그것은 차이와 반복을 일차적인 것으로 삼기에 어떤 동일성에도 환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는 죽음본능이 중성적 에너지에 비해 먼저 존재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죽음은 어떤 물질적 상태에 응답하지 않는다. 거꾸로 죽음은 모든 물질을 전적으로 포기한 어떤 순수한 형식 -시간의 텅 빈 형식- 에 상응한다(ibid.)”는 것이다.

이는 죽음이 부정으로도, 대립의 부정성으로도, 제한의 부정성으로도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의 전형은 일정한 수명의 생명이 물질 앞에서 겪는 제한에서 오는 것도, 불멸의 생명과 물질 사이의 대립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죽음은 차라리 문제들의 마지막 형식이고, 문제와 물음들의 원천이며, 모든 대답 위에서 문제와 물음들이 항구적으로 존속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표지이다. 죽음은 (비)-존재를 지칭하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이고, 모든 긍정은 그렇게 지칭되는 이 (비)-존재에서 자양분을 얻고 있다(ibid.).

여기서 ‘(비)-존재’란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여 이해하지 않는 들뢰즈와 가타리에 있어서, 죽음은 과거와 현재의 교착이자 잠재적 사건으로서 서로를 머금고 있다. 매번의 새로운 생성을 통해 존재하는 이 잠재적 사건은 삶의 전체 틀을 변화시킬 역량(puissance)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매번의 생성이기에!). 다시 한 번 확인되지만, 그에게 있어 “삶과 죽음의 문제, 사랑과 성차(性差)의 문제 등이 과학적인 해답이나 입장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믿음일 것이다(ibid., 244).”

여기서 습관과 기억의 대비는 유용하다. 즉, 변화에 대처할 또 다른 모색이 필요 없는 습관은 생명체가 생존을 이어나가는 일차적인 존재방식인 반면, “지능은 ‘학습’을 요구하며 차이 속에서 반복을 찾아나간다. 시간 속에서의 반복을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이 지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에게 이러한 일반적 수준의 반복 -지능- 은 삶과 죽음이라는 고차원적 반복에 비해 열등하다. 들뢰즈가 파고 들어간 무의식적 수준의 주체성, 곧 ‘에벌레 자아’는 생명체의 본질이 곧 기억이라고 말한다. 의식 이전의 차원에서 성립하는 생명체의 기억은 죽음조차도 진화의 산물로 여긴다(이정우, 2004: 272-273 참고).

고차원적 반복으로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논의는 소수문학의 논의 중 병과 건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면서 죽음과 소수문학이 서로를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습관의 방해를 넘어 생성으로서의 죽음을 사유하는 작업은 비인칭으로서의 죽음을 사유하는 지점에 이르러 그 특성을 드러내기에 이른다.

## 2) 나의 죽음(je meurs), 누군가의 죽음(on meurt)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적 수준의 반복을 뛰어넘는 고차원적 반복인 죽음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이는 죽음론의 두 번째 특성을 묻는 물음이다. 들뢰즈는 ‘나의 죽음과 누군가의 죽음’을 구분하는 블랑쇼(M, Blanchot)를 예로 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체의 소멸, 곧 예고의 소멸은 부정적 이미지로서의 죽음에 관계되는 ‘나의 죽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내부에 있는 것, 곧 내재적인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 도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적 차이에 따른 반복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니체적인 ‘주사위 한 번 던지기’로 비유되는 매 사건에 대한 긍정 곧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한 긍정을 따른다면, 현재의 살아있고 감각 가능한 신체를 기준으로 사후(死後)를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Pearson,

1997: 64 참고).

매 순간이 긍정되어야 한다면 결국 죽음 이후의 순간들 또한 긍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들뢰즈의 생각은 바로 이렇다. 즉, “삶이 죽음에 직면하면 하게 될 수록 그것은 죽음의 영원성이라는 측면에 더 참여하는 ‘새로운’ 것이 된다 (Williams, 2011: 173).” 습관이 낳은 일반성과 기억의 부분적 특수성 모두를 초월하고자 하는 들뢰즈의 반복론은 과거(습관)와 현재(기억) 간의 얽힘을 넘어 미래(영원회귀)를 사유한다. 그렇다면, 죽음 또한 “생명에 대한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자궁으로(Pearson, 1997: 64)” 이해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들뢰즈의 논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블랑쇼의 생각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블랑쇼가 보기에 글쓰기는 작가로 하여금 ‘죽어감(le mourir)’을, 바꿔 말해 자신의 천성과 성격을 버릴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벗어나 비인칭을 긍정하는 경지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 이 곳이 바로 주체가 사라진 문학이 도래하는 ‘텅 빈 장소’이다. 여기서 글쓰는 주체는 당연히 나(je)가 아닌 익명의 사람들(om anonyme)이 된다. 이 때의 자아란 차라리 “밀도를 가진 강도(l'intensité)가 존재하는 자리로, 단순한 일상성이라기보다는 ‘주체성 없는 주체(sujet sans subjectivité)’ 혹은 ‘자아 없는 자아(moi sans moi)’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박규현, 2002: 203-204 참고).”

들뢰즈는 이러한 문학적 범주로서의 블랑쇼의 익명의 죽음론을 자신의 영원회귀 사유와 관련지어 ‘철학화’한다. 즉, 끊임없이 힘 있는 것만이 되돌아오나, 늘 차이를 동반함으로써 원환에 갇히지 않는 사태로서의 영원회귀 말이다.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1968)에서 블랑쇼의 『문학의 공간』(1955) 일부를 인용한 부분을 살펴보자.

죽는다는 사실은 어떤 급진적인 전복을 끌어안고 있다. 이 전복을 통해 내 능력의 극단적 형식이던 죽음은 박탈하는 어떤 것이 된다. 시작하고 끝내는

내 능력의 바깥으로 나를 내던지는 가운데 내게서 그런 능력을 박탈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죽음은 다시 나 자신과 무관한 것, 나에게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것, 곧 실재성을 결여한 무한정자가 된다. 나는 이 전복을 표상할 수 없고 심지어 결정적인 것으로 포착할 수도 없다. 이 전복은 그것의 저편을 지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비가역적인 이행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료되지 않는 것, 종료할 수 없는 것,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그것은 현재가 없는 시간이다. 나는 이 시간과 관계하지 않는다. 나는 이 시간을 향해 뛰어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서) 나는 죽지 않기 때문이고 죽을 능력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 시간 안에서) 죽는 것은 익명의 아무개(on)이다. 거기서 익명인은 끊임없이 죽고 또 멈추지 않고 죽는다. …… 그것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다만 끝낼 수 없는 것, 고유한 죽음이 아니라 다만 그 어떤 하찮은 죽음,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다만 카프카가 말하는 치명적인 과오에 대한 비웃음이다(Deleuze, 1968/김상환 역, 2004: 255 재인용).

개체의 소멸을 죽음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설 때, 그것은 무기물질로의 회귀과정의 반복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현 가능하다. 그러나 죽음의 영원회귀라는 관점에 설 때, 그것은 다수적인 모양새를 띤 복수성을 가정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다시 또 다시 동일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영원회귀 모델은 근본적인 모상을 둔 반복이 아니기 때문이다(Pearson, 1997: 65). 결국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미래의 죽음들 속에서 표현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잠재성을 여전히 보유한다(Williams, 2011: 173).”

이제 들뢰즈와 가타리의 죽음론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체적 죽음이 최종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육체적 죽음은 숨이 멈추고, 살이



씩고, DNA 정보가 소멸되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따른 공포와 슬픔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포와 슬픔이야말로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또 다시 도래할 공포와 슬픔은 부정될 수 있는 것도 부정할 만한 것도 아니다. “탄생과 죽음, 성별의 차이 등은 단순한 대립항들이기 이전에 문제들을 제기하는 복합적인 논의거리들이다(Deleuze, 1968/김상환 역, 2004: 243).”

둘째, 죽음은 삶의 조건이다. 죽음은 삶에 있어 가장 큰 문젯거리이다. 이에 대한 사유는 삶을 사유하게 만든다. 모든 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다가 자신만의 죽음을 맞는데, 이는 가장 보편적인 사건인 ‘누군가는 죽는다.’는 사실에 연결된다. “죽음은 독립변수들의 함수로서 아니면 심지어 살아 있는 상태의 하나로서 과학적으로 결정 가능한 사태에 동화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삶과 공외연적인 변이들을 가진 하나의 순수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Pearson, 1999/이정우 역, 2005: 235 재인용).”

셋째, 죽음은 특정한 실현이자 그에 대한 반(反)-실현이라는 이중적 위상을 띤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포와 잔혹이라는 이중성을 벗어나, 공포에서 잔혹으로의 변동 그 자체를 포함한 이중성”을 사유하는 일이다. 죽음은 물체적인 (corporeal) 변화와 비(非)물체적인 변화 - 들뢰즈적인 의미의 사건- 모두에 관계되고, 이 둘 모두의 생성 그 자체이다(江川隆男, 2005: 25). 죽음에 대한 사유가 변동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관계의 사유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주목이야말로 윤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소수 문학: 집단적 언표행위

그렇다면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소수 문학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소수 문학이란 소수 언어로 쓰인 문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자들이 다수 언어로

만들어내는 문학을 말한다(Villani and Sasso, 2003/신지영 역, 2012: 253 재인용).” 또한 “소수 문학은 권력에 봉사하는 지배적 언어의 공식적인 사용으로부터 그 언어를 추출해내기 위하여, 지배적인 언어를 그 스스로에게 낮설어지도록 만들고, 지배적 언어로 하여금 ‘자신의 극단 혹은 그 한계로 향하도록(ibid.)’” 한다. 소설가 카프카는 체코인이면서도 프라하의 독일어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는 독일어로도, 그렇다고 다른 말로도 풍요로운 글을 쓰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글을 써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보기에 카프카는 독일어 사용능력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그 말의 “건조함과 간결함을 통해, 의도적인 빈약성을 통해 나아가면서 탈영토화를 밀고 나가 강도(強度)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지점에까지 도달하는(ibid., 51)” 반대 전략을 택하였다.

자신의 언어가 아닌 언어를 쓰고 사는 사람들, 즉 이민자들과 자식 세대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해야만 하는 언어 자체를 빼앗긴 사람들 곧, 난민들이 도처에 난무하는 세상에서 카프카라는 개인은 단순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개인으로 독해된다.

문학 기계는 도래할 혁명적 기계와 연결된다. 이는 결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문학 기계만이 그 같은 환경에 처한 다른 모든 곳에서 결여되어 있는 집합적 발화행위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학은 민중의 문제다. 카프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을 통해서다. 발화는 그것의 원인인 발화행위의 주체로 소급되지도, 그것의 결과인 발화 주체로 소급되지도 않는다. ...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발화행위의 집합적 배치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문학은 이러한 배치를 표현한다 (ibid., 46-47).

문학은 문학사의 문제가 아닌 민중의 문제다. 즉, 문학은 “다수 언어 그 자체를 소수적인 것으로서 그 내부에서 수립할 가능성(ibid., 48)”을 찾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다수 언어의 영토를 벗어나는 다수자 언어 속의 소수자 언어 찾기, 곧 탈영토화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겨냥하는가.

그 대답은 이들의 전작인 『앙띠 오이디푸스』(1972)가 제기하는 문제의식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이디푸스적 가족구조는 모든 생산적 욕망을 억압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욕망은 라캉의 욕동에 가깝다. 즉, 그것은 결여 이전의 것, 생명의 본질적 특성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오이디푸스가 신경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신경증이, 다시 말해 이미 복종적일 뿐 아니라 자신의 복종을 소통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오이디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신경증의 대가(代價)[상품 가치]다(ibid., 32).”

카프카를 기표와 의미에 종속시켜 일정한 해석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 다시 말해 카프카의 일기, 편지, 단편, 장편 소설들을 어느 주체나, 그의 의미행위로 환원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반대는 이미 그 자체로 정치적인 발화행위인 것이다. 이는 소수 문학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에서 보다 자세히 파악될 수 있다. 그들은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언어의 탈영토화, 2)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직접적 연결, 3) 발화행위의 집단적 배치(Deleuze and Guattari, 1975/이진경 역, 2001: 48)”가 그것들이다.

오설리번(O’Sullivan, 2006; 70-71)은 이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였다. 첫째, 언어의 탈영토화. “소수 문학은 다수자 언어를 탈영토화 한다(ibid.).” 탈영토화는 특정하게 고정된 의미를 중성화해버린다. 즉, 언어의 탈기표화라는 측면을 전면화함으로써 말 더듬기, 바뀌 말해 낮설게 되기를 실현한다. 미국 흑인이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체코인인 카프카가 독일어를 사용함으로써 언어는 혼성화(creolisation)되어 간다. 이는 저자들이 공격하는 ‘명령어’에 반(反)하는 운동이랄 수 있다.

둘째,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직접적 연결. “소수 문학에 속하는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ibid.).” 소수 문학의 특성을 떠나는 것은 대단히 사회적인 것(asocial), 환경적인 것(milieu), 바꿔 말해 가족적이거나 지배적인 통일체 상태가 아닌 것과 연관됨을 말한다. 예컨대, 동물-되기와 카프카의 작품에 나오는 그레고르가 부부관계와 핵가족으로부터 멀리 달아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여기서는 인간적 상태라는 재현적 습관이 중화되어 버리는 동시에 정치적 가능성을 획득하며 기표화와 재현을 혼란케 한다. 문학과 언어학이란 늘 권력 관계 하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던가. 즉, 지배와 저항의 관계 그 자체를 사유하는 담론으로서 말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방언(토속어), 전달어(국제공용어), 지시어(의미와 문화를 고정시켜주는 언어), 신화어라는 잠정적 도식을 설정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 도식은 그 특성상 특정한 시공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소수문학에 대한 정의가 다수문학의 정의에 의존함을 알게 해준다. 그렇기에 정치적이란 것이다.

셋째, 발화행위의 집단적 배치. “소수 문학은 늘 집단적이다(ibid.).” 개별 저자와 그들의 재능은 소수 문학의 공간 속에서는 중요치 않으며, 오히려 집단적 산물로서의 예술에 주목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나 국가를 선도하는 것으로서 예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 문학은 본질적으로 유평의적 기능을 행사하며, 들뢰즈와 가타리의 표현을 좇자면 그 자체로 내재적(immanence)인 것에 해당한다. 소수 문학-기계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자 곧 도래할 혁명-기계를 호명한다. “문학 기계는 도래할 혁명 기계와 연결된다. 이는 결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문학 기계만이 그 같은 환경에 처한 다른 모든 곳에서 결여되어 있는 집합적 발화행위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ibid.).”

이상과 같이 소수 문학은 명령어, 가족, 개인성에 반(反)하여 탈(脫)기표화된 언어, 동물-되기, 집단적 주체성을 표현한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특성은 죽음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연구자들은 이하, 앞서 1-2)에서 내린 죽음에 대한 소결

과 결부하여 이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앞 장에서 내린 죽음의 특성을 다시 진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바라보는 죽음은 첫째, 복합적인 문제-장(場)이다. 둘째, 삶을 사유하는 조건이다. 셋째, 실현과 반(反)실현의 역설 위에서 성립한다. 이 진술들을 토대로 왜 죽음과 소수 문학이 서로를 전제하는지, 나아가 그것이 소수 교육철학의 정립 가능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 Ⅲ. 소수 교육철학을 향하여

#### 1. 죽음과 소수 문학의 관계

##### 1) 강도(強度, intensité)를 사유하기

복합적인 문제-장이자, 삶의 조건이며, 실현과 반(反)실현의 중첩 가운데에서 파악되는 죽음. 들뢰즈와 가타리의 논의에서 이 죽음을 모델로 삼는 것은 ‘탈기관체(Corps sans Organ)’<sup>5)</sup>에 관한 논의이다. “탈기관체의 추구는 ‘왜 꼭 이렇게 되어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맥락보다는 ‘왜 꼭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당위론적 맥락에서 제기되는 생각이다(이정우, 2008: 40).” 왜 그런가. 그것은 분절화를 추구하는 기관화/유기화에 반(反)하기에, 필연적으로 그 분절화를 가능케 하는 강도(強度)를 사유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탈기관체는 “강도(強度)에 따라서만 점유되고, 서식하며, 지나가고, 순환한다(Deleuze and Guattari, 1980/김재인역, 2001: 293).”

에가와 다카오(江川隆男, 2005: 4)는 이 강도의 문제가 사유, 이미지, 신체라는

5) “분열증적 신체의 탈영토화의 한계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분할된 몸과 나쁜 부분 대상에 반대하여 고안된 개념이다. 더 일반적으로는 잠재적이고 매끈한 표면으로 기능하며, 이 표면은 자기를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 안에서 서로 교차하는 흐름들과 분리가 불가능하다(ibid., 69).”

세 항과 관계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강도가 신체와 관계될 때, 바로 탈기관체의 문제가 등장한다. 신체를 그 현존의 문제, 즉 신체가 살아 있느냐 소멸 했느냐로 보느냐와 그 본질의 문제, 곧 유기화의 정도로 보는 것은 판이한 결론을 낳는다. 후자의 문제는 신체의 현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유기화 이전의 문제를 사유한다는 점에서 “죽음 또한 생성하는(ibid.)” 것으로 파악한다. 죽음의 생성, 곧 ‘강도=0’의 상태는 역설적이게도 “존재를 포함하는 다른 이름(ibid.)”이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바로 죽음이라는 양태가 그 본질에 관한 질문, 곧 “그 존재의 방식이 본질의 형태를 포함하는 것(ibid.)”<sup>6)</sup>에 관한 문제로 정식화된다. 이 때 ‘강도=0’에로의 절대적 낙하 가운데 이미지가 등장한다. 이는 ‘강도=0’으로서의 죽음이 실체가 아닌 이미지로서만 파악 가능한 논리적 공간에 거주함을 의미한다.

강도에 대해 사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들뢰즈는 『대담 1972-1990』(1991)에서 가타리와의 작업이 갖는 근본 과제를 말한다. “자연과 인공물 사이의 모든 구별이 사라지는 지점에서 가타리와 나는 우리의 공동 작업, 즉 일종의 자연 철학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Rosanvallon & Preteseille, 2012: 29 재인용).” “그 목표는 자연과 역사, 자연과 문화,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존재와 사유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상의 분리 너머에 위치함으로써 그것들을 식별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ibid.)”고 말할 수 있다.

카프카의 작품들은 하나의 표현-기계(machine d'expression)이다. 표현-기계는 표현과 내용을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상호전제하며, 나아가 표현의 형식화와 탈형식화의 구별 또한 없애버림으로써 출구를 개척한다. 앞서 소수 문학의 특성을 논한 오설리반(O'Sullivan, 2006)의 지적과 같이, 언어의 고정된 의미는 탈형식화를 통해 중성화된다. 외국인으로서의 말, 피지배자로서의 말이 표준어와 혼성화되면서 명령어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용은 작가 개인만의 역량에 의해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 정치적 개인들의 집단적 배치를 바탕으로 기존에

6) 저자는 “실체의 경우와는 본질과 존재의 순서가 바뀌는 것에 유의해 달라(江川隆男, 2005: 5)”고 주문한다.

주어진 배치를 새롭게 구성해나감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 소수 문학은 바로 이 표현의 배치를 바꾸어나가는 역량을 갖춘 문학이다.

작가는 표현면상에서 어떠한 우월한 위치도 점유하지 않는다.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다수의 언어들, 언표 행위의 양식들과 형식들에 잠겨 있다는 점에서, 작가는 물리적으로 규정되고 생물학적으로 조직화되며 특히 사회적으로 배치되는 내용면에서만이나 표현면에서도 자유롭지가 않다. 작가가 자신이 물려받은 언어를 탈형식화하고 변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끈기 있는 실험의 결과이며, 이러한 변형과 탈형식화는 언어활동에 구멍을 뚫고, 모든 언표적 배치들과 그에 의해 야기된 질료적 배치들을 <도주선 혹은 변형의 선 위로> 나아가게 만들며, 그 실험이 경화되는 지점을 넘어 욕망의 과정 자체 혹은 순수한 소송(訴訟)으로서의 욕망과 결합하기에 이른다(Rosanvallon & Preteseille, 2012: 36).

죽음이 '강도=0'이라는 순수 이미지를 향한다면, 소수 문학은 언어적 실험이 '경화되는 지점을 넘어 욕망의 과정 자체', 즉 "욕망이 사물의 존재 자체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존재론적인(ibid., 25)" -오이디푸스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되는 지점을 향한다. 언어와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외견상의 분리를 넘어 언어 자체의 '지각불가능하게-되기'에 이르기, 그리하여 "형상체계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를 창출하기(이유선, 2004: 252)." 이렇듯 생성으로서의 죽음을 사유하는 일과 표현으로서의 언어를 사유하는 일은 강도(強度)라는 이론적 도구를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자연주의 프로그램의 형성에 기여한다.

## 2) 문학과 삶 : 소수 문학과 죽음

이제 카프카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죽음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작품들은 일상의 의식 속에서는 부재하는 죽음의 모습을 낯선 형태로 드러냄으로써 -주인공이 영문도 모르고 살해되거나(『소송』),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죽거나(「선고」), 기계의 오작동 속에 죽어가거나(「유형지에서」), 벌레로 변한 상태에서 죽는다(「변신」)- 죽음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 성찰을 유도한다(오순희, 2010: 23).”

이러한 인식을 염두에 둔다면 죽음과 소수 문학은 서로를 전제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들뢰즈의 『비평과 진단』(1993)에 수록된 「문학과 삶」이라는 글은 이 물음에 답한다. 다시, 이 글 최초의 물음으로 되돌아가보자. 즉, 글쓰기란 무엇인가?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어떤 형식을 완성하는 것, 그것은 글쓰기가 아니다. 오히려 비정형과 미완성을 생성시키는 것이 글쓰기이다. 동일화, 모방 따위의 형식에 이르기보다는 ‘여성-되기, 동물-되기, 분자-되기’를 실천하는 것, 그리하여 이 옷에 있는 것과의 구별불가능 지대, 미분화(未分化) 지대에 이르는 것이 글쓰기이다.

그렇다면 글쓰기는 무엇과 더불어 시작되는가. 그것은 로렌스(D. H. Lawrence, 1885-1930)에게서는 고슴도치의 죽음과 더불어, 카프카에게서는 두더지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된다. “부드러운 연인의 몸짓을 하며 내밀어진, 우리의 불쌍한 붉은색의 조그만 발들(Deleuze, 1993/김현수 역, 2000: 15-17)”

언어는 여성·동물·분자라는 우회로에 반드시 도달해야만 한다. 모든 우회로는 죽음의 생성이다. 사물에도 언어에도 직선이란 없다. 통사법은 사물에 있어서의 삶을 현시(顯示)하기 위해 매번 창조된 필요한 우회로의 총체이다. ... 문학은 ... 보편성이 전혀 아닌 최상의 특수성인 어떤 비인칭의 힘을 명백



한 인격체의 모습 -남성·여성·짐승·복부·어린이- 으로 발견하면서 비로소 멈춰 선다. … 나(Je) -블랑쇼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성(le neutre)>- 를 말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서 앗아가는 3인칭이 우리 내부에 태어날 때만 문학은 시작된다(ibid., 18-19).

문학은 일종의 건강계획서다. 신경증이나 정신병이 생성과정의 중단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 생성을 열어젖히는 것은 문학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자기 자신과 세계를 치료하는 의사(ibid., 20)”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순수하고 우세한 종족을 세울 때마다 일어나는 병(ibid., 21)”인 정신착란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정신착란은 “지배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거리고, 억누르고, 가두는 모든 것에 대해 설 새 없이 저항하고 과정으로서의 문학 속 움푹한 곳에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억압받는 잡종의 종족을 세우기(ibid., 22)” 때문이다. 그것은 민족·종족·부족을 무시하는 세계사에 걸친, 일종의 ‘종족과 대륙의 이동’을 표상한다.

병과 건강, 곧 죽음과 삶의 역설적 조건인 소수 문학, 반대로 소수 문학이 되기 위해 이르러야만 하는 정신착란의 경지. 도대체 이 경지가 어떻게 교육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일까. 우리는 언어의 문제와 연결 지어 이에 답할 수 있다.

언어는 정신착란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정신착란은 언어의 고유한 주름이나 홈들로부터 언어를 벗어나게 한다. 제3의 측면은 모든 언어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지 않고서는,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언어에도 속하지 않는 보기와 듣기로 이루어진 한계·안·바깥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떤 외국어라도 언어 속에 그 구덩이를 파놓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Deleuze and Guattari, 1975/이진경 역, 2001: 23).

언어에 속하지 않으면서 보기와 듣기로 이루어진 어떤 궁극의 지점에서, 언어

는 정신착란, 다시 말해 삶과 죽음의 조건을 사유하는 지점에 이를 수 있다. 이는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는 “작가가 언어의 틈새와 언어의 차이에서 보고 듣는 진정한 사유(ibid.)”이기 때문이다. 즉, 보기와 듣기로 이루어진 한계에서의 언어는 언어와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가능조건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 2. 소수 교육철학의 조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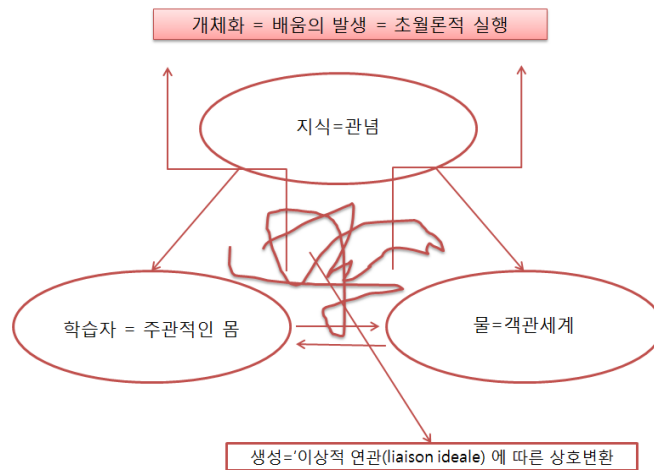
### 1) 참된 문제와 거짓 문제

어떤 한계에 이른 언어에 대한 사유, 그 언어의 표현인 소수 문학, 소수 문학이 배태(胚胎)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 죽음은 소수 문학을, 소수 문학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 소수 문학과 죽음의 ‘구별 불가능성’, 이 구별 불가능성이 향하는 한계점으로서의 도약은 교육철학적 지평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우리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새롭게 제기하는 삶과 무지의 문제를 사유함으로써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마련해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나서 그 답을 찾으면 문제와 답 모두 사라져도 좋다고 말한다(1더하기 2는 3이야, 이제 남은 건 없어.). 그러나 이는 어떤 우스꽝스런 문화 이미지의 기원일 뿐이다. 이는 “학력고사, 정부의 지시, 신문사의 경시 대회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들 속에서 거둬 발견되는,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한 개인의 취향이 모든 이들의 취향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속에서만 작동할 뿐인 현상이다(Deleuze, 1968/김상환 역, 2004: 350).”

소수의 교육학적 시도들은 이런 착각을 뛰어넘고자 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그런가. 이 시도들조차도 기존의 부정적인 조건들을 파헤치는 일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어떤 상

정적 장(場)에 속하는 ‘이념적 객체들(objective ideas)’로 바라보아야 한다. 즉, 그것들은 단지 ‘주어진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커틀러와 맥켄지(A. Cutler and I. MacKenzie, 2011)는 이를 보다 상세히 구별한다. 그들은 들뢰즈가 자주 언급하는 수영하기의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설명한다.



[그림 1] 수영에서 배움의 요소들과 그 연관7)

수영을 배우는 사람과 ‘물(水)-체(體)’는 아무 연관도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하는 지식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 수영 강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는 어떤 방법에 따라 강습을 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안다. 근대 학문 전반은 이 지식이라는 요소가 나머지 두 요소를 지나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영을 배우는 일은 단지 전문가의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7) 이 그림은 커틀러와 맥켄지의 논의를 좇아 연구자들이 재구성해 본 것이다. 우선 지식은 합리주의(실증주의 및 플라톤주의)에, 학습자의 몸은 현상학에, 객관세계인 물은 구조주의에 대응한다. 커틀러와 맥켄지는 근대 이후 지식이 나머지 둘을 억압한다고 말하면서, 배움의 발생은 이 세 이념적 객체들을 ‘절화(involution)’-진화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 그러나 그것은 직선적이지 않다- 발생한다고 말한다.

은 신체적 개입을 통해 학습자의 선(先)의식적인 행위가 작동하는 일에 관련 된다(Cutler and MacKenzie, 2011: 53-55).”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교사들은 숙제를 검사할 때, 틀린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번역이나 정해진 답을 내놓는 경우는 제외될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글에서 진부한 것들, 흥미도 중요성도 떨어지는 것들, ‘독특한(singular)’ 점과 평범한 점의 혼동, 왜곡된 문제제기 따위를 너무나도 자주 대한다(Deleuze, 1968/김상환 역, 2004: 339). 예컨대, 수영 강사가 시범이나 설명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의식 이전의 차원에서 ‘체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름의 자족성을 지닌 ‘이념적 객체들’이랄 수 있는 ‘몸-물-지식’은 어떤 물음을 제기하는 가운데 특정한 답, 곧 개체화에 이른다. 그것은 상호규정을 통한 미분적 운동 가운데 발생하므로, 답을 가능케 하는 문제의 조건을 사유하는 것이 진정한 과제가 된다.

## 2) 소수 교육철학을 향하여

1980년대 이후 교육학계에는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수용과 부정적인 거부로 나뉘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수용조차도 포스트모더니즘이 설파한 교의들을 -불신, 소서사, 차이, 리즘 등- 동결하는 데에 만족하거나, 혹은 단순히 교육 친화적인 의미로 옹기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2000년대 초반, 교육철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킬라(R. V. Arcilla, 2002)는 ‘교육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왜 대화를 나누지 않는가?’라는 물음을 던진 바 있다. 오늘날 교육철학자들은 스스로를 여성주의 인류학자나 자유주의 정치 이론가 혹은 포스트모던 사회 이론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즉 교육의 철학적 측면에 대한 본질적 고찰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는 교육철학 연

구에서 이를 해소할 언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데리다의 언급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교육철학이란 특정한 방식으로 철학자들을 독해하도록 지속시키는 작업이다(Gregoriou, 2004: 234-236 및 재인용).”

그레고리우(Gregoriou, 2004)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수 교육철학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철학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주었던 것처럼, 교육철학에서도 ‘카프카적인 반복’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규제 대신 발견하기, 재인(recognizing) 대신 마주침(rencontre)<sup>8)</sup> (ibid., 248)”에 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생각들을 건져낼 것인가를 잊어 버렸다. 즉, 어떻게 하면 교육철학에 검경(檢鏡)을 들이대는 대신 또 다른 가능성에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이다(ibid.).”

콜(D. R. Cole, 2011: 550)은 “현대 사회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도(強度)는 교사-담론(teacher-talk)과 교육연구 간의 정동(affect)<sup>9)</sup>을 통해 채워지고 분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정동(affect)’은 ‘언어와 힘(power)의 결합’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학문적 권위가 지닌 기반을 약화시키는 역할. 둘째, 예측하지 못한 사회-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 이 두 요소의 결합관계를 비판적으로 독해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의 가르침과 배움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교사의 언어 또한 힘을 실어 나르는 것이다. 교사가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한 경우, 이 열정과

8) “전통적인 표상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서 재인(réognition)을 대체하는 과정으로서 적어도 두 개의 이질적인 계열들을 관련시키는 것. 마주침의 대상은 강도 내의 차이(‘기호’), 즉 감수성을 어떤 역능에 이르게 하면서 이를 탄생시키는 감각되지 않는 것(l’insensible)이다 (ibid., 120).”

9) “감화(affectation)와 쌍을 이루고 동시에 대조를 이루는 용어. 감화는 개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이 과정의 결과 또는 감정적인 상태라는 관습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에 반하여] 정동은 감화들로부터 블록에 의하여 추출된 것이다. 지각작용들(perceptions)로부터 지각(percept)의 블록을 추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추출작용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예술의 역할이다. 이렇게 추출된 정동은 개별적이거나 인격적인 모든 측면을 잃어버린다(ibid., 348-349).”

성실성은 교실 전체에 스며든다. 이는 일방향이거나 의도적이지 않다. 나아가 사회적 맥락에서 교실은 언어와 힘 그리고 의미를 다루는 일종의 ‘깔대기’이다. 거기에는 사회적 차원에서 본 학생의 삶과 교사가 능동적으로 포함시키지 못한 교육적 ‘면(plane)’이 동시에 존재한다. “교사들은 집단으로 존재하는 학생의 사회-문화적 체계를 수용하는 가운데, 인위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서 이 면(面)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ibid., 553).”

그는 이 ‘면(面)’이 객관적 학습경험과 주관적 상상력을 결합한 강도적이고 외연도적인 감각을 동시에 포함한다고 말하면서, “에로스적인 언어-정동(erotic language-affect)(ibid., 557)”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다음의 교육철학적 인식을 제공한다. 첫째, 인접성의 연속이라는 조건에 의거한 창조성의 산출 및 관료적이고 도구적인 이성의 개입에 반(反)하는 의지의 고양. 이것이 통합적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총체적 자아를 만들도록 해준다는 점은 매슬로우(Maslow, 1970) 등 여러 교육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둘째, 그것을 한 번 알고 나면 그 힘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하는가 또한 이해하게 된다. 즉, “이는 의미론적(semantics) 수준에서, 경험의 상호 인격적 측면을 구성해내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단어-문법적 자원의 전형들을 제공한다(ibid., 558).” 이상과 같이 우리는 카프카를 소수 문학의 전형으로 독해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논의를 좇아 이 가능성을 언어의 문제와 연관 지어 교육철학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IV. 결론

현대 교육철학은 죽음과 교육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삶의 불가분성 속에서 파악되어온 죽음은 그 교육적 계기를 강화해 나아감으로써 죽음교육이라는 틀을 확장해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죽음론을 소수 교육철

학으로 정립하는 일은 소수 문학을 통해 보다 확고한 위상을 획득한다.

이 가능성을 시험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제기되는 것은 생성의 입장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죽음 또한 하나의 생성, 삶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것은 일직선적인 시간관념에 의거한 종말이 아니다. 이런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기에, 보편적 사건으로서의 혹은 내가 아닌 누군가로서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에게 하나의 사건은 완벽하게 다음 사건과 단절되어 주어지는 것인가. 인간이 습관의 존재인 한, 현재와 미래는 서로 얽혀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죽음을 사유하는 일의 숙명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분절 불가능한 것, 따라서 생성과의 불가분성 속에서 파악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생성으로서의 죽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유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소수 문학은 이에 즉응(卽應)한다. 모국어도 아닌, 이방인의 말도 아닌 혼성화된 말을 사용하고 글을 쓰는 이들. 이 소수자들의 삶을 담은 문학은 ‘명령어’로서의 언어라는 한계를 넘어 새로운 생성을 창조해내는 샘(泉)이다. 이는 다수자의 언어를 사용하되 그것을 고정된 의미체계로 받아들이길 거부함으로써 다수자의 언어에 틈을 낸다.

이 글쓰기는 고슴도치의 죽음(로렌스)과 더불어, 두더지의 죽음(카프카)과 더불어 시작된다. 죽음이 생성되는 모든 우회로, ‘여성·동물·분자·되기’에 이르는 문학. 이 인격 없는 것들, 이 정신착란에 이른 것들. 그러나 이는 병이 아니라 건강이다. 생성과정을 중단시킨 신경증과 정신병을 넘어 문학은 이 중단을 치유하기에 말이다. 혼성화된, 완전한 외국어도 아닌 언어는 “작가가 언어의 틈새와 언어의 차이에서 보고 듣는 진정한 사유(Deleuze, 1993/김현수 역, 2000: 23)”를 창조해낸다.

우리는 이를 통해 소수 교육철학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다만 찾아내면 문제와 답 모두가 사라져도 좋다는 믿음은 우리의 오래된 교육적 우화(寓話)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문제를 창출해내기, 그것을 제기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에

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수영을 하는 이의 몸, 수영장의 물 그리고 수영을 가르치는 강사의 지식은 그저 주어진 대상이 아닌, 각각의 이념적 객체들, 곧 자체 변형의 역량을 지닌 것들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근대 교육 이후 고정된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배움의 전부인 양 착각해 왔다. 잘 포장된 지식의 전달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킨 교육철학자들이 할 일이라고는, 특정한 방식으로 철학자들을 독해하도록 강요하는 일 뿐이리라.

카프카가 언어의 간결함을 통해 ‘풍요로움에 반(反)하는 풍요로움’을 생산해냈던 것처럼, 학문적 권위가 지닌 공고함에 균열을 내고, 나아가 사회-문화적인 지평에 변형을 가하는 작업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험들이야말로 상호 인격성과 새로운 언어적 자원들을 확보해주는 교두보가 된다.

결국 들뢰즈와 가타리의 죽음과 교육 간의 관계는 그들이 말하는 소수 문학을 경유하여 파악되며, 이를 바탕으로 소수 교육철학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소수 교육철학은 기존의 학문적 권위들 -영미의 분석적 교육철학,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철학, 유럽의 해석학적 교육학 및 비판 이론 등- 의 한계를 근본적 수준에서 지적하고 삶과 배움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 인식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선보(2003). 실존주의 철학에서 본 죽음과 교육. *교육문제연구* 19. 1-22.
- 박규현(2002). 블랑쇼, 죽음의 시학. *프랑스학연구* 22. 201-222.
- 오순희(2010). 카프카의 「사냥꾼 그라쿠스」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 *카프카연구* 23. 23-42.
- 이유선(2004). 디지털 다매체 시대의 글쓰기 전략: 카프카 형상언어를 중심으로. *카프카연구* 12. 247-270.
- 이정우(2004). 들뢰즈: 죽음은 自然으로의 회귀이다. *철학, 죽음을 말하다*. 서울: 산해. 263-284.
- \_\_\_\_\_(2008). *천 하나의 고원: 소수자 윤리학을 위하여*. 파주: 들베개.
- 江川隆男(2005). 『死の哲學』. 東京: 河出書房新社.
- Arcilla, R. V.(2002). Why Aren't Philosophers and Educators Speaking to Each Other?. *Educational Theory* 52(2). 1-11.
- Cole, D. R.(2011). The Actions of Affect in Deleuze: Others using language and the language that we make...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43(6). 549-561.
- Cutler, A. & MacKenzie, I.(2011). Bodies of Learning. Guillaume, L. & Hughes, J.(Ed). *Deleuze and the Bod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53-72.
- Deleuze, G.(1968).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aris: PUF. 김상환 역(2004).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 \_\_\_\_\_(1993). *Critique et Clinique*. Paris: Minuit. 김현수 역(2000). *비평과 진단*. 고양: 인간사랑.
- Deleuze, G & Guattari, F.(1975). *Kafka: Pour Une Littérature Mineure*. Paris: Minuit. 이진경 역(2001).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서울: 동문선.
- \_\_\_\_\_(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2*. Paris: Minuit. 김재인 역(2001). *천 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2*. 서울: 새물결.
- \_\_\_\_\_(1991). *Qu'est-ce que la philosophie?*. Paris: Minuit. 이정임 · 윤정임 역(1995).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현대문학사.
- Gregoriou, Z.(2004). Commencing the Rhizome: Towards a minor philosophy of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6(3). 233-251.
- O'Sullivan, S.(2006). *Art Encounters Deleuze and Guattari: Thought Beyond Represent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Pearson, K-A.(1997). *Viroid Life: Perspectives on Nietzsche and the Transhuman Con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1999). *Germinal Life: The difference and repetition of Deleuz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이정우 역(2005). **싹트는 생명: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서울: 산해.
- Rosanvallon, J. & Preteseille, B.(2009). *Deleuze & Guattari à Vitesse Infinie*. Ollendroff & Dessesins. 성기현 역(2012). **들뢰즈와 가타리의 무한 속도**. 파주: 열린책들.
- Villani, A et Sasso, R.(2003). *Le Vocabulaire de Gilles Deleuze*. Paris: Revue Noesis. 신지영 역(2012). **들뢰즈 개념어 사전**. 서울: 갈무리.
- Williams, J.(2003). *Gilles Deleuze's Difference and Repetition: a Critical Introduction and Guid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신지영 역(2010).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해설과 비판**. 서울: 라움.
- \_\_\_\_\_.(2011). *Never Too Late?: On the Implications of Deleuze's Work on Death for a Deleuzian Moral Philosophy*. D, W, Smith(Ed). *Deleuze and Eth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71-187.

## Abstract

# Deleuze and Guattari's Death, the Minor Literature and the Minor Philosophy of Education

Seung Ri Yoon

Inha University

This essa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nd the minor literature and the minor philosophy of education. Deleuze and Guattari conceive death as the source of question and the problem. Death overcomes Freud's death-drive and is conceived as the universal event. Then, death is understood as the essential problem, the condition of thought about life, and the paradox of actuality. On the other hand, their minor literature is able to figure in Kafka's works, *Metamorphosis* and so on, excellently. Deleuze and Guattari argue that Kafka's works push ahead to the edge of the deterritorialization. Their argument on the minor literature has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 territorialization of the language; second, the directional connection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social; third, the collective arrangement of the statement. Death and the minor literature share the "intensity" as the theoretical tool and thus presuppose each other. From this, we are able to draw the possibility of the minor philosophy of education. It makes a crack on the major philosophy of education, exposing the limitation of the doctrines. In other words, the major philosophy of education enforces the reading of grand philosophers by the defined ways only. Instead, Deleuze and Guattari show the creative way through their research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and extend the field of thought. In following this way, we can repeat the novel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also. In this essay, we examine their "affect" for the possibility.

**Key words:** *Death, Minor Literature, Minor Philosophy of Education, Intensity, Affect, Apprenticeship*

논문투고일자: 2019.11.16.

논문심사일자: 2019.12.20.

게재확정일자: 2019.12.27.